

## 직면에 대한 기독교 상담적 이해와 활용 가능성

전요섭(성결대학교 기독교상담학 교수)

### 논문초록

본 연구는 기독교 상담에서 직면의 효과적 활용가능성을 모색해 보려는 것이다. 대부분의 상담에서는 직면을 중요한 기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상담자가 내담자를 직면시킬 때 내담자는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이고도 정확하게 인식하여 사고와 행동변화가 발생한다는 것은 직면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다. 그런가하면 상담자가 직면을 잘못하면 상담관계에 부정적 현상이 나타나므로 직면은 가급적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있다. 직면은 기독교상담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상 직면은 일반상담에서보다 기독교 상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직면은 성경적인 명확한 기초를 가지고 있다. 직면은 상담기법 가운데 의미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다양한 입장이 있고, 학자들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아 온 것이 사실이며, 활용정도에 따라서도 상담학적 견해가 분분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면에 대하여 기독교 상담적 입장에서 그 개념을 정리하고 방법, 직면의 문제와 위험성 등을 모색하고 고찰하여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수립하려고 하였다.

**주제어:** 기독교상담, 상담, 심리치료, 직면, 죄, 상담기법

- I. 머리말
- II. 본론
  - 1. 직면의 정의 및 개념
  - 2. 성경에 나타난 직면
  - 3. 직면을 위한 상담자의 태도
  - 4. 직면의 장애요소: 합리화 및 회피
  - 5. 효과적 직면 방법
  - 6. 직면의 위험성과 주의점
- III. 맺음말

## I. 머리말

일반상담 및 심리치료나 기독교 상담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상담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직면을 상담의 중요한 기법으로 활용하고 있다(Egan, 1977: 180). 콜스톤(Colston, 1969: 26)은 내담자를 직면시키는 것은 모든 상담에서 요구되는 필수적인 상담과정이라고 주장했다. 직면은 내담자의 사고와 행동수정 및 치료와 회복에 효과적인 기법이지만 직면시키는 과정에서 심리적 문제를 야기 시킬 수도 있다. 또한 잘못된 직면의 결과는 내담자로 하여금 자기 방어를 유도하거나 내담자의 감정에 손상을 주어 상담을 조기 종결하도록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직면을 잘못시키면 상담관계가 파괴적이 되고 부정적 현상이 나타나므로 직면은 가급적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있다. 그런가 하면 직면이야말로 내담자로 하여금 진정한 성장의 기틀을 제공하는 상담활동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또 상담에서 직면의 부족이나 부재는 상담윤리의 부족이나 부재로 인식하려는 주장도 있다(Hoffman, 1979: 5). 기독교상담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전인적인 존재이지만 죄로 타락되었으며, 그로 인해 다양한 문제를 가진 존재로 이해하고 있다.

내담자가 겪는 모든 문제가 죄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문제해결, 치유, 회복되고 진정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담자의 비윤리적 상태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직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직면이 일반상담 및 심리치료에서도 활발히 다루어지기는 하지만 기독교 상담에서 더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그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기독교상담 일각에서는 극단적으로 상담을 직면과 동의어처럼 이해하려는 입장도 있다(Collins, 1988: 44). 이처럼 직면은 상담기법 가운데 의미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다양한 입장이 있고, 학자들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아 온 것이 사실이며, 활용정도에 따라서도 상담학적 견해가 분분하다(Corey & Corey, 1989: 15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면에 대한 기독교 상담적 이해를 기초로 개념을 정리하고 직면의 방법, 직면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와 위험성 등을 모색하고 고찰하여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수립하려고 한다.

## II. 본론

### 1. 직면의 정의 및 개념

직면(confrontation, 直面)은 한자에서 곧을 직(直), 얼굴 면(面)이라 하여 문제를 똑바로 보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 직면은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대면' '도전' 또는 '맞닥뜨림' '직시'라는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다. 국어사전에 따르면 직면의 정의는 어떤 일이나 사물을 직접 대면함이라고 되어 있다. 미국심리학회에서 출간된 『심리학 사전』에 따르면 직면은 어려웠던 상황, 현실, 불일치, 모순된 상황 등에 직접적으로 대면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Kirwan, 1984: 153; VandenBos, 2007: 216). 서더랜드(Sutherland, 1996)는 다소 특이한 표현을 했는데 직면은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약점에 대

면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일반적으로 직면은 내담자의 사고나 정서에 나타난 불일치, 모순, 생략, 변환 등을 상담자가 지적해주어 문제 또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맞닥뜨리도록 하는 상담개입을 의미한다. 직면은 내담자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또는 인정하기를 거부, 회피, 부인하려는 생각이나 정서에 주의를 집중시켜야 하는 기법이다. 그러므로 내담자가 인식, 인정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직면이 불필요하며 내담자 왜곡, 불일치 현상이 나타난다면 객관적 인식을 위하여 주의를 집중시키는 작업으로써 직면이 필요하다. 힐과 오브라이언(Hill & O'Brien, 1999: 308-309)은 내담자의 불일치에 강조점을 두어 불일치에 개입되는 것을 직면이라고 보았다. 그들이 분석한 불일치는 첫째, 내담자가 자기 모순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둘째, 내담자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셋째, 내담자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 넷째,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이 다른 것, 다섯째, 내담자가 방어하는 것, 여섯째, 비합리적 생각을 하는 것 등이라고 주장했다. 길버트와 브룩(Gilbert & Brook, 1988: 189)은 불일치를 내담자의 말과 행동사이의 모순, 또 말과 말 사이에서 나타나는 모순으로 분류한 것에 비하면 힐과 오브라이언은 매우 구체적으로 분류했다.

콜린스(Collins, 1988: 39)는 직면은 잘못 고정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내담자에게 바른 견해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것은 일반상담에서는 바른 정의가 될 수 있으나 기독교상담의 특성을 드러내는 개념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코리(Corey, 1990: 337)는 상담현장에서 내담자를 직면시켜야 하는 상황을 세 가지로 주장했다. 첫째, 내담자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그의 말이나 행동에서 어떤 불일치가 발견될 때, 둘째,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요구와 관점에 의해서만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상황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깨닫게 할 때, 셋째, 내담자가 어떤 주제를 회피하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 느낌들을 수용하려고 하지 않을 때 직면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일반적으로 직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담자가 지각한 내용과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둘째, 내담자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을 기대하고 있는 경우, 셋째, 내담자의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 넷째, 내담자의 말과 이에 대한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섯째, 내담자의 의도와 다른 행동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내담자가 알지 못할 때, 여섯째, 내담자가 이중메시지, 또는 혼란된 메시지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상담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내담자를 직면시킬 수 있다. 첫째, 내담자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그의 말이나 행동에서 어떤 불일치가 발견될 때 상담자는 불일치를 지적할 수 있다. 둘째,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욕구에 의해서만 상황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직면이 사용될 수 있다. 즉 상담자는 직면을 통해 내담자로 하여금 그가 경험한 상황에 대한 대안적 창조의 틀을 갖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경험상의 왜곡을 해소할 수 있다.

맥민(McMinn, 2001: 62)은 기독교상담은 죄에 대한 직면을 다루게 되므로 일반상담과는 그 접근방법이 다르다고 했다. 기독교 상담에서 직면은 내담자에게 자신의 삶을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도록 요구하는 것이다(Tripp, 1996: 8-14). 그렇다면 직면은 내담자의 죄성을 비롯하여 무책임성, 자기 실패감 및 행동, 부조화, 자신의 사고와 불일치한 삶의 태도 등에 초점을 맞추어 직면시켜야 한다. 상담자가 내담자를 직면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직면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

직면에 대한 이러한 견해들 가운데 공통적인 면은 내담자의 잘못된 인식이나 인지를 지적하여 객관적인 인식과 인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때 직면은 상담에서 필수적이며 높은 수준의 기법이다(Evans, Hearn, Uhlemann & Jvey, 2003: 175). 기독교 상담에서 본다면 직면은 내

답자의 문제 가운데 최악된 상태를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정서 및 행동으로 합리화시키거나 왜곡, 생략, 변환, 거부, 회피, 부인하려는 시도를 성경에 비추어 지적하고 그것을 인식, 인정하도록 하여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상담자와 내담자간 작업동맹이라고 할 수 있다.

콜스톤(Colston, 1969: 33)은 주장하기를 직면은 '판단'을 뜻하는 헬라어  $\kappa\rho\acute{\iota}\sigma\iota\varsigma$ 에서 비롯된 용어라고 분석하면서 판단은 직면과 동일 개념으로 이해했다. 그는 요한복음 7장 24절에 근거하여 상담자는 내담자를 어느 정도 판단하는 입장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런가 하면 에반스, 현, 울맨와 지비(Evans, Hearn, Uhlemann & Jvey, 2003: 189) 등은 비판단적인 직면을 통해 내담자가 자신의 모순된 생각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면에서 기독교 상담적 직면과 일반상담의 직면은 개념을 달리하고 있다. 만일 판단이 없다면 직면은 많은 경우 단순히 내담자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으로 상담이 끝나게 될 수도 있다. 여기서 판단은 기독교상담자에게 중요한 상담활동으로서 이는 판단을 위한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내담자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내담자의 문제를 성경에 기초한 판단이어야 한다(Colston, 1969: 195). 그렇게 볼 때 상담자는 하나님의 판단의 시각을 가져야 한다(Cosgrove, 1988: 96). 콜스톤(1969: 25)의 주장에 따르면 기독교 상담에서는 반드시 내담자를 직면시켜야 하는 상황이 요구되며, 상담자는 필수적으로 판단적 성향을 소유해야 한다고 보았다. 길버트와 브룩(1988: 189)도 의미 있는 직면이 되기 위해서는 판단 없이 내담자를 대면시킬 때 발생한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담자를 직면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 2. 성경에 나타난 직면

### 1) 구약에 나타난 직면

에스겔은 "내가 그들을 국문하려느냐?" 하고 "열조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겔 20:4)라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직면시킨 바 있다. 이 구절에서 에스겔은 이스라엘 장로들의 죄를 직접 책망하였다. 장로의 죄를 직면시키면서 그들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하기 위한 에스겔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대언이라고 할 수 있다(Duguid, 1999: 260). '국문'이라는 용어 중 '문(judging, **שפט**)'은 히브리어로 '판결하다' '판단하다'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알게 하여'라는 구절은 NIV성경번역에서 직면(confront)으로 번역되었다. 판단과 직면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판단에 기초하여 결정이 내려지고 그 결정은 직면되어 알게 해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사무엘하 12장에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간음을 직면시키는 것은 구약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직면의 사례인데 이와 같은 내용은 시편 32편에도 기록되어 있다(Cleave, Byrd & Revell, 1987: 79). 또한 잠언 27장 5절에도 직면이 설명되어 있다.

### 2) 예수 그리스도의 직면

직면과 관련하여 신약성경에 나타난 단어는 admonish, reprove, rebuke, exhort, edify 등이 사용되었다(Kirwan, 1984: 153). 예수께서는 상담을 통해 인간의 죄악된 사고와 행동을 직면시키면서 변화를 요구하셨다. 예수께서 인간을 대하실 때 그들로 하여금 직면하도록 했다는 것은 성경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례가 제시되고 있다(Collins, 1972: 56).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께서 "가서 네 남편을 데려 오라"고 단호히 말씀하시고 이 여인의 죄를 지적함으로써 그 여인에게 자신의 죄의 실상을 분명히 보게 하셨는데 이것이 예수의 직면이었다. 예수께서는 이 여인의 죄를 지적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직면토록 했다. 예수께서

는 이 여인을 정죄하기 위하여 직면시킨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인도하였다. 예수의 태도는 온유하면서도 내담자를 존중하는 태도였으며 동시에 단호한 자세를 잃지 않으셨다(Collins, 1980: 50). 이처럼 예수께서는 다른 사람을 대했던 핵심적인 일로써 직면을 활용하셨다. 라이언(1990: 119)은 이러한 예수의 직면방법을 '점진적'이라고 표현했다. 점진적이라는 것은 완곡하거나 급진적이지 않은 직면이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요한복음 4장의 사례는 점진적인 것이 아니며, 성경에 점진적인 직면의 사례가 있다고 할지라도 많은 경우에 급진적이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를테면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는 매우 직접적이며 급진적인 직면을 유도하셨다고 볼 수 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경우, 십자가 사건 후 슬픔과 회의에 가득 차 각자 제 갈 길로 가던 제자들은 노중에 만나 동행하던 사람이 누구인지 인식하지 못했다. 예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떡을 떼어 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들이 눈을 떠서 예수가 누구인지 인식하게 된다(눅 24:13-34). 그리스도와 직면하게 되면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게 되는데 이것은 성경에 나타난 일반적 현상이다. 베드로도 주님을 실존적으로 직면했을 때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눅 5:8)."라고 고백했다. 어떤 자에게는 숨긴 죄를 직면시키셨다(마 23:25).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마 19:21)." 예수께서는 마르다의 지나친 분주함, 젊은 부자 관원의 잘못된 가치관을 직면시키신 바 있다(Collins, 1980: 222). 예수께서는 바리새인의 외식을 직면토록 했으며, 그의 제자들의 이해부족에 대해서도 직면시켰다. 사실상 직면은 예수께서 다른 사람을 대했던 핵심적인 일이었다(Collins, 1988: 257). 이렇듯 예수의 직면은 점진적이지 않았고 사람들의 성격과 필요, 이해 등의 차이를 인식하면서 적절한 방법으로 직면시켰다.

기독교상담자의 태도는 이러한 예수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맥민(1996: 171-176)은 예수께서 어떤 내담자에게는 죄에 대해 직접적으로 다루었으며, 어떤 내담자는 죄에 대해 부드럽게 대하셨던 것처럼 내담자의 유형에 따라 직면방법을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면은 점진적이면서도 급진적이고, 진리와 사랑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너무 가혹하지도, 너무 빈약하지도 않아야 한다. 훌륭한 상담은 돌봄과 직면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것으로서 이를 햄브리(1987: 23)는 '돌봄적 직면(caring confrontation)'이라고 하였다. 그런가 하면 클리브, 바일드와 리벨(Cleave & Byrd와 Revell, 1987: 79, 84)은 이러한 직면을 일컬어 '사랑의 직면(loving confrontation)'이라고 표현했다. 이 표현은 예수의 직면을 잘 표현한 용어이며 기독교상담자의 특성이 되어야 한다.

클라인벨(Clinebell, 1979: 52)은 내담자의 성장은 직면에 의해서 산출되는 것으로 묘사하였다. 직면을 통해서 내담자가 혹시 자존감의 손상을 입는다고 인식하거나 또는 무시당한다는 느낌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Corey & Corey, 1989: 67). 이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해서인지 초보상담자의 경우에는 직면을 통해 내담자의 정서가 손상될 것을 두려워하거나 저항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직면시키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축어록을 분석해 보면 초보상담자들의 공통점은 공감을 많이 다루지만 직면은 거의 다루기 어려워하는 경향성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상담경험이 많은 상담자는 경험이 적은 상담자에 비해 직면을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자가 직면을 많이 활용하는 상담이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낸다. 내담자의 감정에 손상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여 잘못을 침묵으로 묵과하려는 상담은 잘못된 것이다. 비록 갈등을 야기하고 내담자의 심기가 불편해지더라도 성경에 입각하여 분명하게 잘못을 직면시키는 데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내담자의 잘못된 사고와 행동에 대해서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지적해 주는 경우 내담자의 정서적 수용이나 행동적 수용에 변화를 얻을 수 있으며, 반면에 무조건 들어주기만 하는 경우에는 깊이

있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 3. 직면을 위한 상담자의 태도

효과적인 직면이 되기 위해서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상호신뢰하며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 상담자가 내담자를 직면시킴에 있어서 내담자를 비난하거나, 면박을 주거나, 적대적 입장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 곁에서 그를 지지해 주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 지지적 직면의 표시 가운데 하나는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부드러운 억양과 말투로 직면시켜야 할 것이다(McMinn, 1996: 171-176).

상담자와 내담자의 신뢰관계가 형성되면 직면하는 말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상담자는 내담자를 직면시키기 전에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감정을 반영해주며 공감적 이해를 하고 있음을 내담자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브라우닝(Browning, 1985: 35, 58)은 직면과 공감관계를 매우 밀접한 것으로 이해하면서 상담자의 직면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공감이라고 보았다. 공감적 반응이 내담자로 하여금 직면하게 만들 것이지만 훌륭한 상담자는 공감을 넘어서는 자이다.

기독교상담에서 내담자에 대한 공감반응은 필수적이다. 성경에는 이 용어가 없지만 '공흡' '체흡'이라는 단어가 공감을 충분히 설명하는 말이다. 맥민(McMinn, 1996: 176)은 '공감적 직면'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공감적 직면은 내담자의 정서적 상태를 공감하면서 직면하는 것으로 상담자는 내담자가 하는 말의 내용을 반영하면서 문제를 직면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직면과정에서 상담자는 정서적인 지지와 사랑으로 부드럽게 내담자를 대한다(Collins, 1988: 44). 직면은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이면서 정확하게 보는 과정이므로 직면 이후에 내담자는 상담자의 지지에 대해서 털 의존적이 된다. 기독교상담자는 성경을 거울로 하여 내담자가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상담자는 일방적이거나 강압적인 태도나 내담자를 정죄하는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직면은 내담자를 이해시키기 위한 쪽으로 고려해야 한다(Carkhuff & Anthony, 1979: 95). 내담자를 존중하는 태도와 개방적인 자세, 신뢰적 태도를 보이면서 내담자에게 직면을 요구하면 상담이 수월하게 진행 될 수 있다.

#### 4. 직면의 장애요소: 합리화 및 회피

상담자가 내담자를 직면시키면 내담자는 대부분의 경우에 의미있는 고백을 통해서 직면하게 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내담자가 죄책감만 느끼거나, 상담자의 태도에 저항하거나, 정서적 손상을 입고 분노하는 경우도 있다. 펄스(Perls, 1969: 87)는 대부분의 내담자는 직면에 이르게 되면 불안과 슬픔, 죄책감 등 고통스런 정서가 발생되어 본능적으로 직면하려고 하지 않고 이를 합리화시키거나 회피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이를테면 적지 않은 내담자들은 직면을 요구받을 때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그 때는 도저히..." "그런 상황이 되면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만약 ...하기만 한다면" 등의 방식으로 회피가 나타날 수 있다. 또는 내담자가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자신이 범한 죄와 잘못을 부인하거나 합리화하는 것이거나 직면을 회피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내담자는 자신의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성숙의 기회도 잃게 된다.

대부분 직면의 시제는 과거의 영역이다. 폴스터와 폴스터(Polster & Polster, 1973: 46)는 대체로 과거의 해결되지 않은 정서에 대해서 내담자를 직면시켜야 할 부분이라고 보았다. 이런 정서가 남아있으면 편견과 의기소침, 자기 패배적 행동이나 충동적 행동, 신경증 등이 나타나게 된다고 보았다. 내담자는 과거의 불쾌한 기억이나 정서를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알 때, 그것을

회피하려고 한다. 내담자가 직면을 저항하면 상담자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가 곤란해 진다(Curran, 1969: 86). 저항은 내담자가 무의식에 억눌렸던 고통스런 문제를 드러내 놓기 싫어하여 상담을 거부하고 자신을 방어하여 상담에 협조하지 않으려고 한다. 특히 자기 방어가 강한 내담자는 상담에 적극적인 참여를 회피하게 된다. 이러한 내담자에게 직면시키는 것은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경우가 직면이 필요한 상황이며, 직면을 통해서 상담과 회복이 더욱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Olson & Claiborn, 1990: 131-137). 이러한 내담자의 방어는 상담현장에서 발견되는 일반적인 경우로서 내담자는 상담을 거부하고 방어하려고 한다(Salizman, 1979: 32-40).

코리(Corey, 1990: 324-325)는 직면에서 문제가 되는 저항에는 다섯 가지 방식, 즉 내사, 투사, 반전, 편향 그리고 혼란 등이라고 보았으나 그 밖에도 합리화, 부정, 도피, 지성화 등의 경향성이 나타나기도 한다. 정신역동에서는 직면에 저항하는 상황 또는 전이를 잘 해석해 보면 내담자의 문제 진단이 가능하다고 본다.

내담자가 겪었던 과거의 사건, 문제, 잘못, 정서 등을 정확하고 얽매었던 것들을 풀어주며, 해방감을 갖게 하여 온전한 미래로 나가도록 하는 기법이 직면이다(Bettler, 1994: 6-7). 직면은 내담자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신체감과 고통 및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과거로 가는 과정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내담자는 직면하기를 어려워하는 것이다. 하지만 직면은 내담자로 하여금 새로운 시각을 갖도록 하고 자신의 내적, 외적인 행동을 변화시키는 기초를 제공한다. 직면은 상당한 기법을 요구하는 상담활동임에 틀림없다(Egan, 1977: 180). 직면은 심리적으로 고통스럽기 때문에 상담자는 내담자가 심각한 고통 및 고민만을 느끼도록 해서는 안 되며, 안전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직면시킬 수 있어야 한다(Wright, 1993: 107).

## 5. 효과적 직면 방법

### 1) 해석과 격려

직면은 내담자의 직면 사실에 대한 적절한 해석이 뒷받침 될 때 온전하고 효과적인 직면이 될 수 있다. 직면 자체만으로는 아무 의미 없는 상담활동이 되고 만다. 『정신의학 사전』에는 '직면' 항목에 설명이 되어 있지 않고 "see interpretation(해석을 참고할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직면과 해석을 동일차원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Campbell, 2004: 144). 잘못된 직면은 단순히 내담자가 과거에 고통스러웠거나 혐오스러웠던 기억을 되살리는 것인데 이런 직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 따라서 직면은 상담자의 통찰과 해석이 중요하다. 상담기술로서의 해석은 내담자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인과관계를 설명해 주거나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Hill & O'Brien, 1999: 335). 직면은 해석과 더불어 변화를 일으키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해석에 있어서는 성경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코리(Corey, 1988: 67) 등은 상담자가 상담 관계에서 가치나 신념의 중립을 엄격하게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도 않다. 상담자는 내담자와 이야기를 나눌 때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느낌을 갖고 자신의 가치와 신념에 대해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독교상담자는 일반상담과는 다른 성경적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독교상담은 중도적 입장이나 가치중립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Evans, 1990: 124). 기독교상담자는 상담에서 자신의 신앙과 성경적 가치관을 숨겨둘 수 없기 때문이다.

크랩(Crabb, 1977: 147)은 신앙성경에서 권면의 어원을 가진 용어보다도 위로를 어원으로 하는 말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난다고 보았으며, 강하고 견고한 권면이 옳고 필요할 때도 있지만 부드러운 지원과 격려, 용납 등이 더 바람직할 때도 있다고 제안한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효과적인 직면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하며 내담자가 바르게 직면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해 주어야 한다(Collins, 1988: 39). 만일 내담자가 고통스러운 정서에 대해서 직면하는 것이 두렵다고 느끼거나 말할 때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충분한 격려와 함께 자신의 문제에 주의 깊게 직면한 내담자는 상담자의 해석을 수용하게 된다.

내담자를 직면시키는데 있어서 질문기법을 활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다(Meier, Minirth, Wichern & Ratcliff, 1982: 434). 또한 비유를 통한 직면의 방법은 구약에 나단 선지자에게서 나타난다(삼하 12).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죄에 대해서 암양 새끼에 대한 비유를 통해 성공적으로 직면시킨 사실이 있는데 나단은 다윗을 단순히 직면시킨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고백과 회개로 이끌었다. 이런 비유를 통한 직면의 방법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직면 방법임을 알 수 있다. 예수의 비유 가운데 상당수는 바리새인들을 직면시키기 위한 것들이다.

## 2) 직면의 시기

직면을 잘못하면 내담자의 변화를 유도하기보다는 내담자에게 거부감만 야기 시키다가 성과 없이 상담이 종결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내담자가 심리적으로 직면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더욱이 내담자가 심리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력하고 도전적인 직면은 내담자에게 심리적 부담과 위협 또는 정서적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다. 직면을 활용하기에 적절한 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기는 어렵지만 상담초기에는 직면을 피해야 한다.

상담자와 내담자 상호간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이 신뢰의 기저에는 사랑이 존재해야 한다(Tripp, 2002: 200-202). 상담자는 내담자의 죄를 직면시키기에 앞서 적극적이고 충분한 경청, 공감적 이해, 수용 후 직면시켜야 한다. 바울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고전 4:14)."고 했듯이 내담자의

치유와 회복 그리고 영적인 성숙과 변화를 위해서 상담자는 사랑의 마음으로 직면을 시켜야 한다. 상담에서 직면과 수용적 태도가 가장 핵심적인 치료적 반응이었으며, 상담관계가 깊어질수록 직면, 해석, 지시나 판단 등의 치료적 반응이 유효하였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최경희, 2004: 71-82). 그러나 단기상담이나 단회적 상담 또는 전화상담 등에서 상담자는 내담자를 직면시키기 위해 더욱 주의와 기술이 요구된다. 이는 정서적 유대감이나 신뢰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며, 그것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는 상태이므로 직면은 조심스럽다. 이때 내담자는 위협감, 거절감 등을 느낄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에 상담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직면할 때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직면을 활용하려는 뚜렷한 이유와 직면을 통해 얻으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설명할 수도 있다. 직면은 어디까지나 내담자의 변화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직면을 평소 에 품었던 부정적 정서나 선입관을 표출하는 기회로 삼지 말아야 한다. 상담자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전문용어는 피하고 쉬운 언어로 직면하여야 한다. 사용하는 어휘보다는 상담자의 음색이나 억양, 태도 등에 더 유의해야 한다. 직면할 때 내담자의 인격이나 행동동기보다 내담자의 일치되지 않고 왜곡된 언행에 초점을 둔다. 하지만 이를 비판하지 않고 그 언행을 그대로 묘사하며 직면시킬 수 있다.

직면 후 상담자는 내담자가 직면에 대해 반응할 충분한 시간을 주고 기다려야 한다. 내담자가 직면하려고 하지 않고 방어와 저항을 나타내게 되면 상담자는 곧바로 다시 직면하기보다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상담자 자신의 직면방식을 점검해보거나 내담자의 특성과 심리적인 준비 정도를 검토한 다음 다시 시도한다. 때로는 직면 후 내담자가 우울해지거나 빈약한 자아상을 가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치료적 직면 후에는 지지적 중재가 필요하다.

직면에 있어 내담자의 반응은 통상 다섯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자신의 상황에서 어떤 모순된 점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 둘째, 자신에게 문제

가 있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인정할 준비를 한다는 것, 셋째, 아직 실제적인 변화를 원하지는 않지만 상황을 정확하게 보려는 안목을 갖는다는 것, 넷째, 문제를 인정하고 변화에 기꺼이 순응하려는 것, 다섯째, 내담자 스스로가 문제를 제거할 혁신적인 변화의 방법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사소한 문제부터 직면을 시작하고 이에 대한 내담자의 반응을 통해 다음 단계의 직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정할 수 있다. 내담자가 사소한 직면에 자신의 적절한 책임을 인정한다면 다른 직면도 잘 다룰 수 있는 정서적 자질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소한 내용에 대해서 급진적으로 직면시킨다면 상담자와 내담자의 작업동맹관계가 지속되기 어렵다. 죄를 직면하도록 도울 때 너무 서둘러서, 너무 자주, 너무 직접적으로 직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상담자는 직면을 사용할 때 내담자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면밀히 고려해서 사용해야 한다. 이것을 조지와 크리스티아나(George와 Cristiani, 1990: 162)는 수용성(receptivity)이라고 표현하면서 동시에 적시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3) 직면의 적용

상담 및 심리치료학파에 따라 직면의 역할은 다양하지만 다소 지시적 기법을 활용하는 학파에서 직면을 더욱 선호할 것이다. 기독교상담에서 가장 직면을 강조하는 상담성향은 권면적 상담이다. 아담스(Adams, 1970: 20)는 기독교상담 현장에서 직면은 상담의 본질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다.

기독교상담은 성경에 최종적인 권위를 두고 죄의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내담자가 새로운 삶을 위한 사고와 행동변화를 도출해 내는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경에 기초한 죄의 직면이 우선되어야 한다.

### (1) 성경과 죄의 직면

성경에 언급된 대개의 직면은 내담자의 죄를 직면하도록 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Adams, 1970: 20). 하나님 앞에서 죄의 실상을 바로 보고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기독교상담에서의 직면이다(Craft & Kearney, 1993: 64-65). 직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그 내담자와 상담자가 아니라, 내담자와 그리스도이다. 직면은 내담자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상담에서는 내담자에게 성경을 기초로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죄와 관련된 과거는 내담자가 그것에 직면해야만 해결될 수 있다(마 18:15-20, 눅 17:3, 고전 5:1-13). 하지만 인간은 죄를 비롯한 자신의 부정적 정서와 맞닥뜨리는 것을 회피하려는 심리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내담자가 회피하려는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직시하고 그것을 해결하도록 돕는 것은 상담자의 몫이다.

테일러(Taylor, 1991: 92)는 직면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인식에 차이가 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내담자를 초대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렇기 때문에 직면은 그 차이에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각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개념이 될 수 없다. 상담자와 내담자간 인식의 차이를 직면시켜서는 안 되며, 성경이 요구하는 것과 내담자의 삶의 차이를 직면시켜야 한다. 기독교상담에서 내담자가 직면해야 하는 것 가운데 중요한 부분은 바로 죄의 문제이므로, 내담자는 성경이라는 삶의 기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해야 한다. 따라서 직면의 기초는 성경에 근거한다. 이에 대해 콜스톤(Colston, 1969: 200)은 상담자는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에 입각해서 내담자를 직면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판단의 기준은 성경이라고 보았다. 성경에는 판단하지 말라고 했다. 직면이 비판단적이며, 정중하게 되다는 것은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니다(마 7:1, 갈 6:1).

아우버거(Augburger, 1986: 174)는 "모든 기독교상담은 가치를 담고 있는 신학과 성경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기독교상담자는 성경과 신학에

근거한 핵심 가치가 무엇이고 어떻게 그것을 전달해야 하는 것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경으로 직면시킨다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내담자는 필연적으로 죄책감을 갖게 된다. 그러나 내담자가 범한 죄에 대하여 죄책감을 야기 시키는 것이 직면의 목적은 아니다. 상담자는 직면을 통해서 내담자로 하여금 죄를 깨닫도록 하고 동시에 죄책감을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Murray, 1959: 67). 그러므로 죄책감의 회복은 직면에서부터 시작되며, 이는 영적 성장을 도모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죄책감은 죄에 대한 책임으로 인하여 양심의 가책과 함께 심리적 고통이 수반되는 정서이다. 그러므로 고백하지 않아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죄책감이 되며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내담자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을 때 상담자는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며 내담자로 하여금 사죄의 확신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직면이라는 같은 용어를 사용할지라도 기독교상담과 일반상담 간에는 그 개념에 있어서 명백한 차이가 발생한다.

## (2) 용서의 직면

내담자가 죄로부터 심리적 해방감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회개에 대한 죄 용서의 확신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자신이 용서해야 할 타인에 대해서 여전히 정서적으로 분노를 비롯한 적개심 등의 정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용서는 인간의 삶 전체에서 치유와 회복에 가장 도움이 되며 축복이 된다 (Craft, Kearney & White, 1993: 182; McMinn & Phillips, 2001: 19). 용서하지 못함으로써 갖게 되는 부정적 정서는 심리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야기된다. 이러한 부정적 정서에는 우울, 불안, 공포, 분노, 적개심, 수치심, 죄책감, 불안감, 거부감 등이 있다. 용서는 기독교상담자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며, 기독교상담의 대부분은 용서와 연관되어 있다.

### (3) 고백과 회개

직면의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죄의 고백과 회개이다. 상담자는 직면을 통해서 내담자로 하여금 죄를 죄로 보도록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회개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클리브·바이드와 레벨(Cleave, Byrd & Revell, 1987: 84)는 직면을 일컬어 '사랑의 직면'(loving confrontation)이라고 표현하면서 중독자를 위한 상담에서는 다른 상담과 달리 직면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이해했다.

자기 노출, 고백 및 회개는 개방적 사고와 정직한 사고를 요구하게 되므로 기독교상담에서는 필수적인 상담과정이며 직면에 있어서 중요한 방편이다. 와이즈(Wise, 1983: 283)는 회개가 고백으로 이끈다고 보았지만 이것은 논리상 적합하지 않은 표현이다. 고백이 회개로 이끈다고 보아야 한다.

길버트와 브룩(Gilbert & Brook, 1988: 189)은 고백을 자기 노출(자기 폭로, self-disclosure)로 이해하고 이는 직면과 유사 개념이라고 보았다. 자기 노출이나 고백은 기독교상담에서는 필수적인 상담과정이다(Collins, 1993: 96). 온전한 과정을 거쳐서 직면되고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한 것이므로 상담자는 죄는 덮어주고 내담자로 하여금 사죄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Adams, 1994: 34). 크랩(Crabb, 1987: 215-231)은 죄로부터 돌아서는 회개야말로 인간이 변화될 수 있는 시발점이며, 회개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고통과 자기 방어를 기꺼이 직면하려 들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직면은 직면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내담자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고백하도록 한다. 또한 하나님을 완전히 의탁하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 용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미어·미널스·위천과 크리프(Meier, Minirth, Wichern & Ratcliff, 1982: 168) 등은

인간이 기법을 발휘한다고 해도 진정으로 죄를 고백하도록 하며 직면을 가능하도록 역사하시는 이는 성령이라고 주장했다.

## 6. 직면의 위험성과 주의점

옴의 친구들이 옴에게 직면을 시키려고 노력한 바 있다(옴 23:10, Hartley, 1988: 534, 539). 옴의 친구들처럼 직면을 강조하는 상담자는 내담자에 대한 이해와 탐색을 깊게 하지 못하고 서둘러 정답을 제시하려는 유혹을 받게 된다. 직면은 적지 않은 부작용도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므로 분별력있게 사용해야 한다. 내담자를 직면시키려는 상담자의 입장은 무례하고 내담자를 정죄하거나 자기 의를 내세우려는 성향이 나타날 수 있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인 취급을 해서는 안 되며, 죄인을 돕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직면을 사용할 때 주의 할 것은 단순히 내담자의 부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거나 내담자 자신의 한계를 깨닫도록 하는 것만 아니고 내담자가 미처 깨닫지 못한 문제를 비롯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사용하지 않는 능력과 자원을 알도록 하여 스스로 주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러므로 직면은 무조건 내담자의 약점이나 부정적인 생각만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Collins, 1972: 56). 상담자가 하나의 상담기술로서 사용하는 직면은 내담자로 하여금 자각을 통해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가져오도록 하여 변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 내담자가 느끼기에 충고로 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인간은 충고하기를 좋아하지만 충고를 듣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탐탁치 않은 마음으로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 (마 21:23)"라고 말한 것으로 봐도 사람은 교훈 받는 것을 즐겨하지 않는다.

직면기술이 내담자의 사고, 감정, 행동의 모순을 지적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고 지시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는 상담자

는 직면 활용에 주저할 수도 있다. 상담자가 내담자의 잘못과 죄를 지적한다는 면에서 직면은 다소 심리적 부담 또는 고통을 야기시키기도 하지만 이는 내담자의 심리적, 영적 성장을 가져오게 하므로 중요한 상담기법이 될 수도 있다(담전 5:19-20). 이에 대해서 조지와 크리스티아나(George & Cristiani, 1990: 162)는 직면을 통해서 내담자의 심리가 황폐해지거나 아니면 성장과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고 직면의 위험성과 효과에 대해서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기독교상담에서는 내담자 또는 신자의 문제에 무조건 책망하지 않고 치유를 위한 직면이 필요하다. 직면을 위해서 가볍게는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암시를 줄 수도 있을 것이다(Egan, 1977: 179-180). 직면은 내담자로 하여금 그의 과거 경험 가운데 승리로 인식했던 것을 무너뜨리고 굴욕감의 경험을 드러내놓을 수 있다(Carkhuff & Berenson, 1977: 207-208). 하지만 무엇보다도 신자로서의 확고한 정체성에 직면시키는 것은 기독교상담의 핵심적인 기법이다.

### III. 맺는 글

본 연구는 상담자가 내담자를 직면시키는 문제에 있어서 일반적인 상담개념과 기법이해를 기초로 하여 기독교상담적인 입장을 살펴보았다. 기독교상담 내에 직면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 기독교상담을 성경에 입각한 상담이라고 전제했을 때 직면에 대한 이해도 그 범주에서 벗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기독교상담 현장에서 직면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담자의 삶과 문제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에 대한 분별이 선행되어야 한다. 직면의 목적은 내담자로 하여금 죄의 자각을 통해 자신의 죄를 고백하도록 하고 회개에 이르게 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죄의 확신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찾게 하는 것이므로 중요한 상담활동임에는 틀림없다.

직면은 상담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담의 유일한 기법이거나 최고의 기법은 아니다. 또한 직면이 상담과 동일시되어서도 안 된다. 기독교상담자는 일반상담에서와 마찬가지로 기독교상담에서도 직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내담자를 바르게 직면시킴으로써 상담효과를 얻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상담자는 직면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인식하여 실수를 최소화하면 기독교상담의 특성을 드러내는 상담이 가능할 것이다. 향후 이 주제의 발전된 연구를 위해서 직면을 변인으로 한 실험연구나 양적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 참고문헌

- 최경희 (2004), "정신역동적 집단심리치료 장면에서의 상담자의 치료적 반응에 대한 연구," 『동서정신과학연구』, 7, 71-82.
- Adams, Jay E. (1994), *from Forgiven to Forgiving*. Amityville, NY.: Calvary.
- \_\_\_\_\_ (1970), *Competent to Counsel*. Grand Rapids: Baker.
- Augsburger, David W. (1986), *Pastoral Counseling Across Cultures*. Philadelphia: Westminster.
- Bettler, John R. (1994), "Counseling and the Problem of the Past," in *The Journal of Biblical Counseling*, 12, 6-7.
- Browning Don S. (1985), *Empathy and Confrontation in Pastoral Care*, ed., Philadelphia: Fortress.
- Campbell, Robert J. (2004), *Campbell's Psychiatric Dictiona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 Carkhuff Robert R. and Berenson, Bernard G. (1977), *Beyond Counseling and Therapy*.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Cleave, Stephen Van, Byrd, Walter, and Revell, Kathy (1987), *Counseling*

- for Substance Abuse and Addiction*, Waco: Word.
- Clinebell, Howard, (1979), *Growth Counseling*. Nashville: Abingdon.
- Collins, Gary R. (1972), *Effective Counseling*. Carol Stream, IL.: Creation House.
- \_\_\_\_\_ (1988), *Christian Counseling: a comprehensive guide*. Dallas: Word.
- \_\_\_\_\_ (1980), *Helping People Grow: Practical Approaches to Christian Counseling*. Santa Ana, CA.: Vision House.
- \_\_\_\_\_ (1993), *The Biblical of Christian Counseling for People Helpers*. Colorado Springs: NAV Press.
- Colston, Lowell G. (1969), *Judgment in Pastoral Counseling*. Nashville: Abingdon.
- Corey, Gerald. (1990), *Theory and Practice of Group Counseling*. Pacific Grove, CA.: Brooks/Cole.
- Corey, Gerald., and Corey Marrian S. (1989), *Becoming a Helper*. Pacific Grove, CA.: Brooks/Cole.
- Corey, Gerald., Marrian S. and Callanan, P. (1988), *Issues and Ethics in the Helping Professions*. Pacific Grove, CA.: Brooks & Cole.
- Cosgrove, Mark P. (1988), *Counseling for Anger*. Dallas: Word.
- Crabb, Lawrence J. (1977), *Effective Biblical Counseling*. Grand Rapids: Zondervan.
- \_\_\_\_\_ (1987), *Understanding People: Deep Longings for Relationship*. Grand Rapids: Zondervan.
- Craft, Charles H., Kearney Ellen & White, M. H. (1993), *Deep Wounds Deep Healing: Discovering the Vital Link Between Spiritual Warfare and Inner Healing*. Ann Arbor, MI.: Vine Books.
- Curran, Charles A. (1969), *Religious Values in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New York: Sheed & Ward.

- Duguid, Iain, M. (1999), *The NIC Application Commentary: Ezekiel*. Grand Rapids: Zondervan.
- Egan, Gerard. (1977), *The Skilled Helper: a Systematic Approach to Effective Helping*. Pacific Grove, CA.: Brooks/Cole.
- Evans, David R., Hearn, Margaret T., Uhlemann Max R. and Jyey, Allen E. (2003), *Essential Interviewing*. New York: Thomson Learning.
- Evans, Stephen C. (1990), *Soren Kierkegaard's Christian Psychology: Insight for Counseling and Pastoral Care*. Grand Rapids: Baker.
- George, Rickey L., and Cristiani, Therese S. (1990), *Counseling Theory and Practice*. Boston: Allyn & Bacon.
- Gilbert, Marvin G., and Brook, Raymond T. (1988), *The Holy Spirit & Counseling II*, Peabody, MA.: Hendrickson.
- Hambly, Gordon C. (1987), *Tele-care: a Resource for People Who Want to Counsel or Care Using the Telephone*. Contact: Teleministries USA.
- Hartley, John E. (1988), *The Book of Job*. Grand Rapid: Eerdmans.
- Hill, Clara E., and O'Brien, Karen M. (1999), *Helping Skill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offman, John C. (1979), *Ethical Confrontation in Counseli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 McMinn, Mark R. (1996), *Psychology, Theology, and Spirituality in Christian Counseling*. Wheaton, IL.: Tyndale House.
- McMinn, Mark R., and Phillips, Timothy R. (2001), *Care for the Soul: Exploring the Intersection of Psychology & Theology*. Downers Grove, IL.: InverVarsity Press.
- Meier, Paul D., Minirth, Frank B., Wichern, Frank B. and Ratcliff, Donald E. (1982), *Introduction to Psychology and Counseling: Christian Perspectives and Applications*. Grand Rapids: Baker.

- Murray, John. (1959), *The Imputation of Adam's Sin*. Grand Rapids: Eerdmands.
- Olson, D. H., and Claiborn, C. D. (1990), "Interpretation and Arousal in the Counseling Process," i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 131-137.
- Perls, Fredrich S. (1969), *Gestalt Therapy Verbatim*. Moab, UT.: Real People.
- Polster, E., and Polser, M. (1973), *Gestalt Therapy Integrated: Contours of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Bruner.
- Ryan, Patrick J. (1990), "The Word: Tough Love," in *America*, 25, 15-22
- Salizman, L. (1979), "Psychotherapy of the Obsessional," in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33, 32-40.
- Taylor, Charles W. (1991), *The Skilled Pastor*. Minneapolis: Fortress.
- Tripp, Paul D. (2002), *Instruments in the Redeemer's Hands*. Phillipsburg: Presbyterian & Reformed.
- \_\_\_\_\_ (1996), "Data Gathering Part 2: What the Counselor Brings to the Process," in *The Journal of Biblical Counseling*, 14, 8-14.
- VandenBos, Gary R. (2007), *APA Dictionary of Psychology*.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Wise, Carroll A. (1983), *Pastoral Psychotherapy*. New York: Jackson Aronson.
- Wright, Norman. (1993), *Crisis Counseling*. Ventura, CA.: Regal Books.

## Abstract

# Understanding & Using method of Confrontation in Christian Counseling

Joseph Jeon(Sungkyul University)

This is to clarify that understanding & using method of confrontation in Christian counseling. Most of all counseling theories including Christian counseling deal with confrontation as an important technique of counseling. When a counselor confronts a client's problems objectively and rightly, a client is going to be occurred his/her thought and behavior. There are two kinds aspects about confrontation. Negative point of view is that confrontation is able to bring to destruction and negativity of counseling relation between a counselor and a client. Generally, Christian counseling recognizes that confrontation makes counseling effectively. Confrontation is based on the Bible. Confrontation is specific point of evangelical Christian counseling. Confrontation is not only skill of secular counseling but also art of Christian counseling.

Accordingly, this research deals with clients' confrontation in Christian counseling. The researcher studies the problem, method, and concept of confrontation. Also, the researcher establishes theological viewpoint and theory of counseling about confrontation.

**Key words: confrontation, sin Christian counseling,  
counseling, psychotherapy, counseling technique**